

주름성형과 안티에이징



홍종욱 원장의
성형이야기

요즘 동안열풍에 힘입어 젊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뀌는 '안티에이징(anti-aging)' 시술이 인기다. 현재 성형외과에서 시행 중인 안티에이징 시술로는 일명 '뽀뽀성형'이라 불리는 주사성형시술과 리프팅수술, 주름제거술 등이 있다.

시술방법은 연령 및 성별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예를 들어 비교적 피부탄력이 좋은 20~30대 젊은층은 필러나 보톡스, 자가지방이식술과 같은 주사성형시술을 가장 선호한다. 노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40~50대는 처진 눈꺼풀을 제거해주는 상·하안검성형술을 비롯해 눈밑지방제배치, 이마거상술, 안면거상술 등을 선호하는 편이다.

반면 60~70대 이상 노년층의 경우에는 얼굴은 물론 목 피부가 심하게 처지기 때문에 안면거상술이나 목거상술과 같

은 리프팅시술의 수요가 가장 높다.

그중에서도 일명 '킷성형', '10분성형', '엔에인주사'라 불리는 주사성형시술은 얼굴의 주름을 없애거나 볼륨을 주는 시술로 시술방법이 간단하고 시술 즉시 일상생활이 가능해 점심시간이나 퇴근시간을 활용해 시술받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또 성형수술과 같이 피부를 절개하거나 뼈를 깎지 않기 때문에 시술에 대한 부담감이나 부작용 우려도 덜하다. 다만 주사성형시술은 자연스러운 성형효과를 낼 수 있을 뿐 성형수술처럼 드라마틱한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지속기간이 보통 6개월~1년밖에 되지 않아 재시술을 해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한편 윗 눈꺼풀 또는 아래 눈꺼풀이 처졌다면 상안검성형술이나 하안검성형술로 교정이 가능하다. 나이가 들면 가장 먼저 노화가 진행되는 곳이 바로 눈가 피부인데, 눈가는 피지선이 발달하지 않고 피부도 얇아 관리에 소홀하면 눈꺼풀 처짐 또는 눈가주름을 유발할 위험이 높다.

눈꺼풀이 처지게 되면 실제 나이보다

더 들어 보이는 것은 물론 상대방에게 지치고 피곤한 인상을 풍기거나 안과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기에 치료해주는 것이 좋다.

수술에 앞서 주의해야 할 점은 눈꺼풀을 너무 과도하게 제거할 경우 '토안(눈이 제대로 감기지 않는 현상)'이나 '안검외반증(피부 안쪽 붉은 속살이 밖으로 뒤집히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약간 모자라게, 그리고 해당시술에 대한 전문성과 해부학적 지식이 풍부한 성형전문의를 시술받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리프팅수술의 대표 격이라 불리는 안면거상술은 주름과 탄력을 동시에 해결해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수술 후 실제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이는 효과가 있다. 안면거상술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절개부위와 박리범위, 리프팅 방향인데, 의사의 실력에 따라 수술결과도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저렴한 가격이나 병원의 유명세만 보고 의료기관을 선택해선 안 된다.

세민성형외과 원장(서울중앙지법 의료중재 조정위원)



김영춘 해수부장관, 인도 해양조정부 장관과 회담

해양수산부는 김영춘 해수부장관이 지난 9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해양조정부에서 루훗 빈사르 판자이탄(Luhut Binsar Pandjaitan) 해양조정부 장관(부총리급)과 회담을 열고 양국 간 해양수산 분야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이 자리에서 양국 장관은 한-인도 정상회담 후속조치로 추진 중인 '한-인도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설립 이행협정'에 서명했다고 해수부는 밝혔다.

/해수부



거래소, 홍콩·싱가포르서 韓 상장기업 소개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부는 JP모건과 공동으로 10일 홍콩, 11일 싱가포르에서 잇따라 '한국 자본시장 설명회 및 상장기업 기업설명회(IR 콘퍼런스(코리아 데이))'를 연다고 밝혔다.

글로벌 기관투자자를 상대로 한국 자본시장과 주요 상장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행사로, 삼성전자와 애경산업 등 상장기업 15개사, 블랙락과 웰링턴 등 글로벌 기관투자자 60여 개사가 참가한다.

/한국거래소

“이거 너 아니야?” 찍히지 않을 권리



기지 수집
신원선
(유통&라이프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본인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나 영상물이 버젓이 타인의 SNS 계정에 올라와있다면 기분이 어떨까? 최근들어 이러한 불만이 사회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언제부터인가 찍을 권리는 늘어났고, 찍히지 않을 권리는 사라져버렸다.

최근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홍대 누드 크로키 사건'과 '마카롱 10개 사건'은 공통점이 있다. 바로 본인 동의없이 개인의 모습이 담긴 촬영물을 유포했다는 것이다.

두 사건이 화제가 되면서 몰래카메라

범죄 처벌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몰래카메라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선고 유예에 그치는 실정이다. 한번 유포되면 인터넷을 통해 순식간에 퍼져나가는 게 몰래카메라 영상임에도 불구하고, 처벌 수위는 상당히 낮은 편이다.

'마카롱 10개 사건'의 법정 싸움도 초미의 관심사다. 사건은 이렇다. 평소 자주 찾던 디저트 가게에서 마카롱 10개를 먹은 A 씨는 황당할 일을 겪었다. 가게 주인이 SNS를 통해 자신을 조롱하는 듯한 글을 게재한 것이다. A 씨는 가게 주인에게 불쾌감을 드러냈지만, 가게 주인은 A 씨가 댓글을 달지 못하도록 계정 차단은 물론, 마카롱을 먹는 A 씨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인터넷상에 공개한 것이다.

온라인상에서 악플 공격을 당한 A 씨

는 충격으로 가게 주인을 부산지방검찰청에 고소했고, 가게 주인 역시 영업 방해로 맞고소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도 이와 비슷한 일은 쉽게 찾을 수 있다.

학부모가 동의하지 않았는데 아이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올린 어린이집, 회원들 몰래 운동하며 땀 흘리는 모습을 게재하는 스포츠센터 등 주변에서도 영상물로 인한 갈등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물론 식별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하고 말이다.

곧 여름이다. '몰카'가 기승을 부리기 전에 처벌 수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해 봐야 할 것은 물론이고 기본적으로 '찍히지 않을 권리'가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을 아는 사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tree6834@metroseoul.co.kr



SKT, 장애청소년 대상 ICT 메이커톤 대회

SK텔레콤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공동으로 9일과 10일 이틀에 걸쳐 서울 고려대학교 화정체육관에서 '2018 SK텔레콤 장애청소년 ICT 메이커톤 대회'를 열었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20주년을 맞는 이 대회는 SK텔레콤이 장애청소년들의 정보통신기술(ICT) 역량 강화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지난 1999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는 행사다. 2016년부터는 코딩·무선통신 등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첨단 ICT 기술에 중점을 두고 'ICT 메이커톤 대회'로 명칭을 변경해 진행하고 있다.

/SK텔레콤

코오롱그룹 마곡 원앤온리타워에 '에코 룬롱 큐브' 개관



친환경 에너지 전시체험공간 '에코 룬롱 큐브'.

코오롱그룹의 비영리 재단법인 '꽃과 어린왕자'는 10일 서울시 강서구 마곡산업단지 내 코오롱 원앤온리(One&Only) 타워에 친환경 에너지 전시체험공간 '에코 룬롱 큐브'를 개관했다고 밝혔다.

에코 룬롱 큐브는 초등 고학년, 중학생들이 친환경 에너지를 탐색하고 체험할 수 있는 '전시 체험관'과 직접 만들어 보

는 '창작랩'으로 구성된다.

특히 친환경 건물인 코오롱 원앤온리 타워의 특징점을 활용해 건물 내 친환경 기술을 찾아보고 친환경 에너지 집을 설계해보는 '코오롱 원앤온리 타워 투어'와 연구원들과 실험실을 견학하고 강의도 듣는 '나도 미래 기술원 연구원' 등 특별 프로그램도 기획했다.

/정은미 기자



신보·과학기술특성화대, 우수창업기업 지원 협약

신용보증기금은 10일 신용보증기금 본점에서 대학 내 우수창업기업

지원을 위해 5개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인 KAIST, GIST, DGIST, UNIST, POSTECH과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과학기술특성화대학 내 우수 연구성과의 기술사업화와 고급인력의 혁신창업 지원을 통해 과학기술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보

인사

- ◆현대모비스 △IVI-SW(In Vehicle Infotainment-Software) 개발담당 상무 칼스텐 바이스
- ◆아시아투데이 ◇승진 ▲비서실 부장대우 겸 편집국 부장대우 안정환 ▲편집국 사진부 사신팀장 부장대우 박성일 ◇전보 ▲사업국 부국장대우 이재원

부음

- ▲한용빈(동천교회 원로장로)씨 별세, 한승우(한약사)·한동우(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한현우(조선일보 문화2부장)씨 부친상, 이선희·박

영주·남지연씨 시부상=9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12일 오전 7시30분, 02-2258-5940

▲이재성씨 별세=이종행(뉴스1광주전남본부 차장)씨 부친상, 10일 오전, 구로전정래식장 402호, 발인 11일 오후 1시, 장지 전남 담양군 선산 062-960-4444

▲이두호 씨 별세, 이정동(창원상공회의소 기획 홍보팀 주임)씨 부친상 = 10일 오전 4시 55분, 경남 창원파티마병원 장례식장 VIP 1호실, 발인 12일 오전 6시 30분, 055-270-1900

▲구도서씨 별세, 구홍희(삼성서울병원 커뮤니케이션실장)씨 부친상=8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11일 오전 7시30분, 02-3410-6915

▲김순복씨 별세, 홍우표(CJB 청주방송 기자)씨

장모상=9일 오전 9시40분, 청주병원 장례식장, 발인 11일 오전 9시, 043-254-1244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중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이 장 규
편집국장	이 장 규
인세인	중앙일보(주) 김교준
광고문의	02)721-9851, 9826
독자센터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3954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150111 2017년3월09일 제0048호



KB손보, 홀트아동복지회와 미혼모 가정 지원

KB손해보험은 10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 홀트아동복지회에서 미혼모 가정 영

유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기부 협약식 및 사회공헌기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을 통해 지원된 365베이비 케어 키트는 기저귀, 분유 등 미혼모들이 출산 이후 영유아 양육에 필요한 필수품을 한데 모았다. (첫 번째줄 오른쪽 세 번째부터) KB손보 양종희 대표이사, 배우 김성은 홍보대사, 홀트아동복지회 김대열 회장.

/KB손보